김제 체육회, 초 · 중 · 고 엘리트육성 훈련비 전달

김제시체육회(회장 백재운)는 관내 초·중·고 엘리트육성을 위해 지난 18일 훈련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는 초·중·고 엘리트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백재운 김제시체육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마음편히 운동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어릴 때부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지원을 받으며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김제시 체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엘리트체육의 저변 확대 및 꿈나무 발굴과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기독교 총연합 임원진, 진안군 방문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은 지난 18일 진안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진안군 성수면 서머나교회 수양관에 체류 중인 베트남 신학생들에 대한 진안군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활동에 대해 감사인사를 했다.

서머나교회 수양관에 체류 중인 베트남 신학생은 총 23명으로 지난 2월 아세아연합신학교 초청으로 한국교회를 배우기 위해 진안군을 방문했다가, 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베트남 국가 차원에서 해외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군은 종교시설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수양관에 체류 중인 베트남 신학생들을 위해 방역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전원에게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춘사진관' 운영

무주군, 치매어르신 위한 감동 있는 사진첩 제작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21일 3년차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춘사진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이란 내 가족이나 이웃이 치매를 앓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살아왔던 동네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군은 지난 2019년에 안성면 외당마을, 부남면 가정마을을 제1호,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공적 부조(정신 · 물질적)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힘써왔다.

이번 찾아가는 청춘사진관은 코로나19로 놀이 · 여가 문화생활이 제한되어 있을 어르신들에게 활력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지자극 콘텐츠(사진촬영)를 활용, 치매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가정방문으로 진행되며, 자택을 배경으로 화려한 의상(양복, 원피스)과 소품(나비넥타이, 부케)을 활용해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촬영된 사진은 보정 및 편집 작업을 거친 후 액자와 함께 개별 택배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춘사진관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래 살다보니 이

런 날도 있다"라며 "내 인생에서 가장 호강한 날"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군은 치매안심마을 2개소 만 75세 이상 가구 35명(부부 6쌍, 독거 23명)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춘사진관'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포함해 치매안심마을의 주요활동과 운영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담은 사진첩을 제작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의회, 윤정수 변호사 입법정책 고문 위촉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18일 입법 활동의 신속한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윤정수 변호사를 입법분야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윤정수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상임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정읍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위촉기간은 금년 6월 1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자치법규 및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을 심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 단체에서의 조례안 연수 및 정책 등 의회관련 제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원광대, 대학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전달식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개교 75주년을 맞이해 선포한 발전기금 1천억원 조성 비전에 따른 원광시랑 대학발전기금 릴레이 기부가 이어져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전달식을 매달 열기로 한 원광대는 처음으로 지난 18일 6월 전달식을 진행한 가운데 대학 배드민턴부 황선호 감독이 2,000만원, 임태환 학생생활관장이 300만원, 장성철 총무처장이 순금 37.5g(10돈), 이형효 기획처장이 순금 18.75g(5돈)을 각각 기탁했다.

특히 장성철 총무처장과 이형효 기획처장은 지난달 개교 75주년 기념식에서 받은 30년 연공상 및 20년 연공상 부상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해 의미를 더했으며, 박맹수 총장도 500만원을 기탁해 릴레이 기부에 동참했다.

박맹수 총장은 "지덕겸수·도의실천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대학에 부여된 소명을 완수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금을 출연해 주셔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모이면 현재 한국의 대학들이 당면한 위기를 우리 대학이 먼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지역 사랑 기부 나눔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최정원)에서는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일태)와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주지역자활에 지역의 가공식품영농조합(반햇소)의 소세지와 떡갈비 500만원어치를 기부하였다.

지원 받은 식품들은 지원기관들의 시설이용 대상자들과 6개 읍·면의 지역아동센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전달 될 예정이다.

황일태 회장은 "항상 지역에 많은 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무주양수발전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도 무주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청소년 자원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진석)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자원봉사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ZOOM 온라인과 대면 봉사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운영되었으며, 1, 2회기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장의 진행으로 ▲문화로 접근하는 통일 ▲세계의 기후변화 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3, 4회기에는 김희문 사)기문가야문화선양회 이사장의 ▲우리 고장 가야이야기를 통해 우리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을 자원봉사와 접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5, 6회기에는 제과·제빵사 진로에 관심 있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빵을 만들며 직업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 나눔으로써 ▲2021년 청소년 문화체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무리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통시장과 공용버스터미널 등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상습정체 구간을 중점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령에 따른 긴급출동 및 홍보 안내 방송을 송출하며 진행되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발병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등으로, 발병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까지 확대되고,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되었다.

/남원=김기두기자